

목양칼럼

겨울에 쓰는 “나무와 숲” 이야기

며칠 전 사진 한 장 보았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의 담 안에 심어진 한 그루 나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함께 보시던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넓은 땅에 우리 교인들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 나무를 심는다면 그냥 심지 말고 조경(造景)을 생각하고 심어,
 훗날 멋진 수목원(樹木園)이 되면 좋겠네요.”
 차가운 12월에 “나무와 숲” 이야기를 나누니 뭔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각각 나무 같은 다섯 개 교회가 함께 숲을 이루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두 번째 찬양 축제를 합니다.
 다섯 교회 모임을 바라보시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가 나뉘고 분열하는 이때, 서로 성향이 다른 다섯 교회가 함께 모여
 성탄찬양 축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나무와 숲” 이야기가 쓰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각 수고하고 활동하던 30대 선교회가
 청장년부란 이름으로 함께 처음 모이는 날입니다.
 각자 “나무” 로도 멋졌지만, 이제 함께하는 아름다운 “숲” 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시던 30대,
 혼자가 아닌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숲을 이루어 사역하시던 30대. (눅 8:1-3)
 그 예수님을 따라 30대 나무들이 숲이 되어 펼칠 기적의 이야기가
 이 겨울에 시작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진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황해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소유영/행정 (917)318-7030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다/중국어부 (929)204-6868	최진식/ (646)887-7419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직원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주후 2017년 12월 10일
 제 43-50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9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차상남 장로 2부 / 임 정 장로 3부 / 송동울 장로 4부 / 최원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5:1-27	사회자
찬양 CHORUS	전능하신 주님 문들어 머리들라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마라에서 엘림으로	1,2,3부 김성국 목사 4부 오인수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84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04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00 (12/10/17)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연합 찬양 축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프라미스 교회에서
6시에 드립니다.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2 Timothy 3:14-17
Prayer Deacon Marcelo Chan
Sermon Peter D. Kim
“The Breathed Out Word of God”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1ое Петра(1Pe.)1:3-9
Молитва брат В. Лян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Спасающий Свой народ”

수요 기도 예배

제자 훈련 수요 예배

오후 8:00 (12/13/17) 사회: 홍승룡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461 다같이
기도 조나영 권사
성경봉독 사회자

사도행전 9:26-31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제자됨

수료식
제자훈련자
수료증 수여/성경암송/헌신찬양 훈련자 일동
간증 김함소 훈련자
광고 사회자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4:45-51
证道 陈玉捷传道
预备主的再来 (I)

새가족 환영회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공동 의회

12/17(주) 오후 3:30 본당

성탄절 칸타타 ‘글로리아’

12/17(주) 저녁 예배

교회소식

12월 결실의 달 -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2/10(주) 성탄 연합 찬양축제 - 크리스마스의 기적 (프라미스교회) 12/12(화) 사랑의 바구니 제작
12/13(수) 제자훈련 수요 예배 12/15(금) 양로원 방문
12/17(주) 공동의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 '글로리아' 12/20(수) 전도폭발 수요 예배

알림

1. **성탄 연합 찬양축제**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오늘(12/10) 저녁 6:00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저녁예배 대신 연합예배로 드리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식사 제공. 찬양대원은 오후 3:30, 교인들은 오후 5:00 교회에서 벤치 출발합니다. * 프라미스교회 주소: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2. **청장년부 창립총회** 디모데, 에스더, 요한, 비비 등 30대 선교회를 "청장년부"라는 이름의 연합 모임으로 새롭게 발족합니다. 창립총회를 오늘 12/10(주) 오후 2:00 영아부실에서 갖습니다. 기존 30대 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랑의 바구니**를 12/12(화)에 만듭니다. 각 선교회에서 2명씩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4. **양로원 위로 방문**을 12/15(금)에 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출발 시간: 오전 9:00 - 롱아일랜드 요양원, 오후 1:40 - 유니온 양로원
5. **공동의회**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17(주)에 주일 오후 3:30에 있습니다.
6. **선교회 총회 결과**

연합남선교회장: 윤석현 집사, 연합여선교회장: 조경옥 권사, 총무: 신기만 집사, 회계: 정주영 집사, 서기:최성수 집사

바울: 박정봉, 김지한	여호수아: 윤석현, 차광혁	마리아: 이은솔, 이정아	루디아: 최정우, 전광인
아굴라: 남형욱, 최성수	모세: 김용생, 임정	브리스가: 정주영, 김수진	한나: 황은애, 김명숙
베드로: 박경수, 송동울	아론: 장봉석, 고국환	마르다: 채현주, 소철화	사라: 이정자, 양정자
갈렘: 신기만, 함용식	아브라함: 황인섭, 이희영	다비다: 조경옥, 김미건	안나: 주봉순, 황계덕

7. **우리교회 로비**가 Queens Chamber of Commerce 주최 리모델링 디자인 1등상을 받았습니다.
8. **성탄절 포인세티아** 화분을 기증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분 당 \$10
9. 12/16(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권사 (다음주: 안수집사부부)
10. **가족기념 장학기금** 정진규 집사, 정희정 권사

새가족

최화순 (비비 3LN1, 려영찬 - 중등) 임배화 (브리스가 2F2) 손병관 (여호수아 3BS5, 김성순 - 루디아)

교우소식

식사제공 손정호 교우(석영지 4GN)께서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감사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소천 김민지(국제익 3BS6)교우의 모친 유병희 교우께서 12/8(금) 소천하시어 오늘 오후 2:30에 중앙장의사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자

주 / 소은자 이성은 유경선 이양미
월 / 정기영 김경미 정수진 김영희 정혜자 이성용 최순금 김은경 이경미 전광인 이정숙
화 / 정기영 박경우 우순우 박정숙 손정호 이경미 전광인
수 / 정기영 편춘자 신진숙 박정희 김은경 손정호 이경미 전광인 정지원 최정우
목 / 정기영 송창호 편춘자 신진숙 박정희 김은경 이경미 전광인 최정우
금 / 정기영 김태선 이사강 조선제 유병열 김은경 이경미 전광인 정지원
토 / 김경구 이정자 박지윤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친교실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고등부실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0	러시아어 예배	22	영어부	34	중등부	65
2부 예배	318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26	고등부	57
3부 예배	333	주일 저녁 예배	272	유치부	32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88	새벽 예배	932	중국어 교육부	23	교회 학교 예배	450
영어 예배	167	수요 기도 예배	193	유년부	93	주일 낮 장년 예배	1707
중국어 예배	293	새가족 환영회	13	초등부	80	주일 낮 총계	2157

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이무근 장로

헌신기도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황인섭 장로
책임권사	심석순 권사	정금숙 권사	서규일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브리스가(다음주: 마르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미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9)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18번 문제 참조)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써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52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5장 1-11절

선지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그분들의 생각처럼 가벼운 죄일까요?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지요. 이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과 교회에 드렸습다. 문제는 얼마를 감추고 마치 소유의 전부를 드린 척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려 했다고 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거짓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룩함을 좇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27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5장 12-16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오늘날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실까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예수님 혼자 하셨던 사역이 이제는 주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에게 나아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1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5장 17-32절

하나님과 사람 중 누가 더 강할까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냈습다. 간혀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옥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이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 대답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

니다. 우리는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 한 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51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5장 33-42절

내가 열심으로 하려는 일을 누군가 막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말로만 막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핍박까지 한다면요?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1).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골 1:24).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주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 핍박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43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6장 1-7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박수를 치기 위해서도 두 손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혼자서만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사역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을 심방하는 일 때문에 말씀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심을 봅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숨처럼 여기고, 함께 섬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7)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6장 8-15절

천사 같은 얼굴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어떤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5)라는 고백이 나오습다. 누구의 얼굴인가요? 스테반 집사의 얼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다. 집사의 책무대로 심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히 나아갔습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들의 얼굴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습다. 우리 가정에도 천사같은 분들이 많으시지만 더욱 천사의 얼굴 빛을 내는 고백이 충만하시길 축복하습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